한국경제 저성장 장기화 전망

향후 5년간 연평균 2.7%↑
중국경제 불안 주요 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7%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약화하고 중국경제 불안으로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부채 디레버리징,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불안, 고령화 등으로 내수회복세도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이날 내놓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반등,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2017년 1.9%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6년 7.0%로 추정되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2020년에는 4.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점차 높아져 2020년에는 4.0%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최근 장년층 취업자 증가는 장년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50세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50~64세 취업자가 28만6000명 증가했지만, 신규로 장년층에 진입한 취업자가 64만5000명으로 장년층에서 벗어난 취업자 23만6000명을 크게 웃돌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대별 인구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 효과는 2019년부터 사라지고 2025년부터는 오히려 취업자 감소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선과 다양한 근로 시간제 확대, 장년층 적합 직무 개발 등 장년층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한경연은 2.6%를 제시한 근거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3.3%→3.1%)에 따른 수출감소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내수활성화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은 2.2%,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1%와 3.7% 증가할 것으로 봤다. 수출과 수입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와 3.0% 줄어들면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GDP 대비 7.0% 정도인 9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4% 올라 0%대에서 벗어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1원으로 지난해 1131원보다 4.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주 기자

토니모리 어때요 코스메틱 브랜드 토니모리의 뮤즈로 활동 중인 포미닛 현아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현대시티아울렛 선큰광장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서 토니모리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JB금융, 정기 주주총회 개최

김한 회장 대표이사 선임

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25일 전주 JB금융지주 본사 3층 대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사외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달 24일 J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후보로 추천된 김한 회장을 상임이사로 최종 선임했다.

이 날 제2대 J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 김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광주은행과 JB자산운용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해 조기 안정화 시켰고 은행업의 수도권 진출, 해외 유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본 확충 성공, 전북은행의 캄보디아 상업은행(PPCB)인수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회장은 향후 3년 동안 JB금융그룹을 이끌게 되며 지난 임기 중 이뤄낸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성공적 기반 확립을 바탕으로 JB금융그룹을 최고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춘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는 이용신, 이종화, 강효석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김대곤 (전)원광대학교 부총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안상균 앵커에퀴티파트너스 대표를 신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JB금융지주 이사회는 김한 회장과 사외이사 4인, 비상임 이사 2인 체제에서 사외이사 1인과 비상임 이사 1인이 추가 되면서 총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정영수기자

전북은행 '문화가 있는 날'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3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5회 JBcard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16년 첫 번째로 펼쳐진 합궁마을의 '뱀부'는 8인의 연주자들이 대형 대나무를 깎아 만든 악기와 다양한 타악기로 풍부한 앙상블을 이루는 공연으로, 부드럽게 울리는 대나무 악기소리를 주축으로 캐논 등 널리 알려진 곡과 창작곡 등을 관객들에게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일반 관람객 이외에도 평소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 노인 등 500여명이 전북은행을 찾은 가운데, 최근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정기적으로 전북은행에서 펼쳐지는 공연행사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적 기업 지원에도 앞장서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한·중 FTA 발효 이후
전자기기·금속공작기계 수출 증가

관세 인하 폭 커 100일 간 각각 97.6%·29.9% 늘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된 이후 100일 동안 전자응용기기나 금속공작기계 등의 대중(對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한국무역협회이 내놓은 '한·중 FTA 발효 100일 무역업계의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으로 대중 수출이 급감했지만 관세 인하 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 폭이 0~1%포인트인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 수는 176개인 반면 관세 인하 폭이 3~6%포인트인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한 품목 수가 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 인하 폭이 3%포인트 이상인 품목 중에서는 전자응용기기(97.6%), 금속공작기계(29.9%), 알루미늄(23.7%), 편직물(22.9%), 의류(18.7%) 등의 중국 수출이 증가했다.

관세 인하 폭이 아직 크지 않은 품목 중에서는 기호식품(39.9%), 철강판(8.9%), 자동차부품(2.5%) 등의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2개월간 초기 영향에 대해 495개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협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44.5%가 2년차 관세 인하 효과를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같은 응답은 대기업(28.1%)보다 중소기업(45.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중 FTA가 본격화될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율의 절반이 인하될 때'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아 FTA 활용을 본격화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경실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아직 FTA 활용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무역업계의 기대는 크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김제시-농협, 제주도서 지평선쌀 홍보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흥형갑 농협 김제시지부장 및 김제 관내 조합장들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현지에 있는 김제 쌀 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 RPC를 방문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성산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용 지평선 쌀(1kg)을 증정하는 등 김제 쌀의 우수성에 대하여 판촉활동을 펼쳤다.

김제 쌀 제주도 판촉행사는 판로확보 차원에서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를 비롯 제주시농협과 애월농협 등 김제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인 기관을 방문 김제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건식 김제시장과 조합장들은 앞으로 제주지역의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김제 지평선 쌀 등이 확대 공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김제 쌀 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공장장 김진성)는 김제지역 원료곡을 현지에서 도정해 당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 성장한 6,000톤(약 130억원)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KESCO 대학생기자단 발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25일, 전북혁신도시 새울림 신사옥에서 '제5기 KESCO 전기안전 대학생기자단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20명의 대학생기자단은 앞으로 공사의 각종 행사를 취재하고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펼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기간 중 우수한 활동을 펼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지난 2012년 첫 걸음을 내디딘 '전기안전 대학생기자단'은 그동안 공사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매개로 공사의 여러 소식과 생활 현장에서 취재한 안전정보들을 전하며 전기안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서왔다.

기자단이 활동한 공사의 '전기안전 미리미리' 블로그(blog.naver.com/kescomiri)는 개설 4년여 만에 누적방문자 480만 명(2015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3,372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광영 기자

익산국토청 남원관리사무소 불법시설물 정비 T/F팀 가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변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불법 시설물들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정비 T/F팀을 가동한다.

대상지역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6개 지자체다.

불법시설물 정비 T/F팀은 관할 시군 관계자도 참여시켜 주요 교차로나 폐도부지 등에 다용도 게시판이나 공동판매장 설치를 통해 사전에 불법시설물 설치를 예방하고 기존 시설물의 양성화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첨단기술 워크숍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지난 25일 새만금방조제 신시33센터에서 '2016년 첨단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및 첨단기술 사업에 대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장 및 각 지역 기전기술부장 등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정진택 첨단기술사업처장의 사업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신규 전략사업 발굴,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 등 현장중심의 기술을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